

## 스크린경마장서 사설 마권 도박 나주 농민 2명 입건

스크린경마장에서 사설 마권으로 도박을 한 농민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은 11일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김모(46·나주시 봉산면·농업)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모(50·나주시 산포면)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부터 광주시 동구 계림동 스크린경마장에서 박씨 등 경마를 하러 온 사람들을 모아 개인적으로 만든 마권을 나눠 준 뒤, 경주 결과에 따라 돈을 배분하는 등 8회에 걸쳐 4천만원 상당의 불법 경마를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한국마사회가 발권하는 마권은 1회에 10만원 이상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들끼리 모여 많게는 100만원씩 돈을 걸고 도박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 ‘판돈 2천억’ 최대 사설 카지노 적발

국내 최대 규모의 사설 카지노가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판돈 2천억원대의 무허가 카지노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카지노 운영자 김모(39)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알선책·딜러·문방(감시조) 등 도박장 조직원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운영자 김씨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13층 건물 5층에 150명 규모의 무허가 카지노를 차린 뒤 카드게임인 ‘바카라’로 판돈 2천175억원 상당의 도박판을 벌여 딜러수수료 등 명목으로 1천300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도박으로 1천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하고도 본인 명의로 재산을 등록해 놓지 않아 세금을 포탈해왔으며 고급 외제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 광주 아파트서 40대 숨진채 발견

## 경찰, 유서 진위·살해 여부 수사

11일 오후 4시50분께 광주시 북구 문흥동 모 아파트에 사는 김모(46·무직)씨가 자신의 집 안방에서 숨진 채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김씨의 머리 뒷부분에 둔기로 맞은 상처 등이 있는 점을 미뤄, 누군가에 의해 살해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또 현관문 안쪽에서 김씨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딸아) 사랑한다. 다음에 태어나면 행복하게 살자’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으나, 유서의 진위 여부 등을 밝히기 위해 필적 감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아들(19) 등 유족들의 행방을 찾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 경찰 근무 ‘부적합자’ 광주·전남 전국 최다

전남청, 100명 중 1.76명 꼴 ‘관리 대상’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100명 중 1.76명이 직무수행이 부적격한 ‘관리 대상’ 경찰관들이었다. 특히 ‘위험한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부적합’(가 급) 경찰관 수는 전국 14개 지방청 중 가장 많았다. <표>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근무 불성실 ▲상습 민원제기 ▲음주운전 전력 ▲채무 과다 직원 등을 ‘관리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를 기준으로 지난 7월 말까지 전국 14개 지방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 대상’ 직원은 모두 1천182명이다. 이 가운데 서울 경찰청이 26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지방청이 191명으로, 뒤를 이었다. 전남지방청은 134명으로,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11일 오후 광주시 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북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에서 ‘용봉동 에어로빅’팀이 ‘파워 댄스’를 선보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배합사료 국고지원제 악용 2억여원 쟁건 양식업자 전남서 첫 적발

해경, 1명 구속 7명 입건  
바다 생태계 보호와 친환경 양식업 육성을 위해 도입한 배합사료 국고보조금(배합사료 직불제)을 횡령한 양식업자들이 전남에서 처음으로 적발됐다.  
목포해양경찰은 11일 배합사료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사기)로 가두리 양식어민 양모(53·신안군 지도읍)씨를 구속하고, 김모(47·신안군 흑산면)씨 등 7명을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 등은 지난해 1월 배합사료를 구입하지 않고도 산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해양수산부에 제출, 국고보조금 2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해수부 등이 보조금을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외에는 별다른 확인작업을 거치지 않는 점을 악용,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배합사료 보조금을 횡령한 다른 공모자가 있는지 수사를

지방청	계	2006년 7월 등급별		
		가	나	다
계	1,182	248	323	611
서울청	266	47	75	144
부산청	96	7	37	52
대구청	44	12	4	28
인천청	49		5	44
울산청	25		14	11
경기청	191	50	49	92
강원청	73	11	28	34
충북청	28	1	13	14
충남청	74	3	16	55
전북청	83	14	21	48
전남청	134	81	16	37
경북청	47	10	23	14
경남청	59	4	19	36
제주청	13	8	3	2

한 ‘가’ 급에 해당하고 있어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또 전국 14개 지방청의 ‘가’급 관리대상(248명)중에서도 전남청이 차지하는 비율은 32.7%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경기청(50명) ▲서울청(47명) ▲대구청(12명) 순이었다.  
반면 전남청이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관리대상 직원은 지난 2004년부터 올 7월까지 15명으로 경기청(24명)에 이어 두 번째였지만, 대부분 견책·감봉·정직 등 경미한 처벌만 한 것으로 드러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양형일 의원(열린우리당·광주 동구)은 “이 같은 통계는 전남청 직원들의 기강 해이 등 심각한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며, 이로 인해 경찰관의 주민 폭행 등 불상사도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관리대상’으로 선정된 경찰관은 직속 상관들이 관리·감독하고, ‘가’급은 한 달에 1번, ‘나’와 ‘다’ 급은 각각 2개월과 3개월에 한 번씩 관할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관리·감독 결과를 알리게 된다. ‘관리대상’ 직원은 ▲근무태도 ▲ 동료직원 등 주변 여론 ▲감독자의 해제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제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인터넷으로 ‘일본인 기생관광’ 알선

성(다)팔 ○~인터넷으로 일본인을 상대로 ‘기생관광’을 알선한 사이버 포주·성매매 여성·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는 일본인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회원제 사이트를 운영하며 일본인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사이트 운영자 정모(34)·안모(여·42)씨 등 3명을 구속하는 등 25명을 입건.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일어와 영어로 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일본 내 성인 전용 사이트에 배너광고를 실어 출장이 잦은 일본인을 회원으로 가입시킨 뒤, 여성을 소개시켜 주고 10만~100만 원씩을 화대로 받아 이 중 20~40%를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했다는 것.  
○~성을 구매한 일본인 남성은 기업체 중역·부동산업자·재일교포 의사 등 중산층 이상이 많았고, 여성의 직업은 패션디자이너·피부미용사·전직 대기업 사원·대학생·중국 유학생 등 다양했는데, 성매매 여성들은 관광·식사·술자리를 같이 하는 등 ‘현지처’ 노릇까지 했다고.  
/연합뉴스

세기스타·세기보청기

기술혁신의 선두주자

다채롭게 무한재능 개성있게

세기가 첨단보청기인 기술의 선두주자

Upgrade

세기보청기

신비

세기스타·세기보청기

100% 만족도

100% 고객만족